

- 본문 : 마태복음 10장 40~42절
- 제목 : “작은 자에게 행한 일”

설교자 : 양승구 목사

· 본문 읽기

40.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 마음의 문을 열며

한국전쟁 당시에 복음을 전하러 온 스완슨 목사가 모든 것이 부족한 전쟁 중에 매일 검정 비닐봉지가 많이 버려지는 것을 발견하고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윽고 검정 비닐봉지가 추위와 굶주림에 죽은 아이들의 시체라는 것을 알게 된 스완슨 목사는 미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뜻하는 “컴패션(Compassion)” 사역이 시작됩니다. 1952년에 시작된 컴패션은 한국에서만 10만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았고 그 가운데 350명의 목회자를 배출하였으며 이제 한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어 세계 곳곳의 다음세대에게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가진 작은 일에 대한 관심과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비록 작아보였지만 결코 작은 결과로 끝나지 않았고 위대한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였고 그 약속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10:40~42)
2.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맞아들이는 자'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3.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공동체의 영적인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작은 자(연약한 자)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때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작은 친절을 베풀기를 다짐하고 계십니까?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지금도 세상에는 가난과 영적인 목마름으로 고통받고 있는 천하보다 귀한 다음세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꼭 필요한 것 외에 남은 것’은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꺼이 나눌 때 그것은 크고 놀라운 것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사랑방에서 작고 연약한 자를 위해 어떻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지 개인의 결단을 나눠보시고, 사랑방이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더불어 교회가 함께 품은 컴패션의 아이들과 함께 동역해 나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말씀기도제목

1. 작은 일에 대한 관심과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위대한 결과로 돌아오게 됨을 기억하며 열방의 다음세대를 품은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2. 나에게 주신 것이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부족한 자에게 나누고 베풀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작고 연약한 자를 그리스도를 섬기듯 사랑으로 품고 복음으로 열방을 섬길 때 “열방의 다음세대”가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